

지역 소식통

부안 변산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흥보 나서

부안 변산면은 11월부터 사용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감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감에 의존한 사회 문화와 인지도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하였다. 이를 위해 변산면은 11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배너 및 포스터 배부와 이장회보 게재 등을 통해 다양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현선 변산면장은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해 위·변조 대리발급 등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어린이집 21개소

1월까지 동절기 안전점검

고창군이 지역내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폭설과 동파 등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미세먼지와 방역관련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또 고창군청은 전체어린이집의 15%인 4개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현황, 통학차량 안전 관리 대책, 급식·위생 및 방역관련 실태를 점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속 제설작업 준비 '총력'

정읍시, 안전한 겨울나기 장비·자재 사전확보 등 취약 구간 비상 균무조 편성

정읍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신속한 제설작업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 등을 사전 확보해 제설 대책 추진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또 휴일과 출·퇴근 시간대의 기습 폭설에 대비해서는 SNS를 활용한 비상 연락 체계, 사전비상 균무 예고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제설작업 체계적인 시스템화와 유관기관·민간자원봉사자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의 비상 균무조를 편성해 기상 상황별·단계별 대응 메뉴얼에 따라 비상 균무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대설특보 시에는 시청 전 직원이 비상 체계에 들어가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 휴일과 출·퇴근 시간대의 기습 폭설에 대비해서는 SNS를 활용한 비상 연락 체계, 사전비상 균무 예고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제설작업 체계적인 시스템화와 유관기관·민간자원봉사자

을 참여했다.

제설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 업수분사장치 3개소와 도로 열선 6개소를 설치했고, 1개소를 설치 중이며, 민간업체와 15톤 덤프 10대를 임대 계약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이 단계적 일상 회복 4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의 빈틈 없는 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을 당부했다.

"빈틈없는 방역 활동 강화"

유진섭 정읍시장,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총력 '당부'

유진섭 시장이 단계적 일상 회복 4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의 빈틈 없는 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29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900명대를 신회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에서도 11월부터 급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이나 호흡기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전체 시민의 81.63%(11. 26. 09시 기준)가 2차 기본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 캠핑 활성이 급증하고 있

/정읍=김대환 기자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문 활짝

정읍시·K-water 나눔복지재단, 동부권역 어르신 접근성·노인복지 인프라 충족



정읍시와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대표이사 김재희)은 29일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섬진강댐 노인복지관(관장 이혜경) 개관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동부권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공간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협약을 체결하고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 12월 3일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설치 완료됐으며 그동안 미루어왔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북도 우수 기관 선정

고창군이 민선 7기 들어 기초생활보장분야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고창군은 기초생활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발굴율이 지난해 대

비 37.7%늘었다. 이는 마을 곳곳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찾아 따뜻한 지원을 펼쳤다는 뜻이다.

김금복지 집행율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군은 매년 비수기 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전라북도지사 표창 2020년 보건

복지부지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고창군청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선정기준 변화와 새로운 복지급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창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백산고,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실시

부안군은 치매극복선도학교로 지정된 백산고등학교에서 1, 2학년 27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 11월 26일 총 2회 기로 나누어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치매인식개선 사업 중 하나인 치매극복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체크 앱 활용 방법, 치매극복봉사단 참여방법 등을 설명하는 치매파트너 교육과 학생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함께 참여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